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94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94명에게 5,000여만원

오늘 찬양예배시 장학금 전달식 가져

도서장학회는 94년도 2학기 장학금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오늘 찬양예배시 장학금 전달식을 가지고 지급할 장학생 및 장학금은 총 94명에 49,190,000원이다.

장학금은 신학원 장학생, 소석 장학생, 충현장학생, 위탁장학생 및 강남구청 사회복지과와 서초경찰서 경무과에서 추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랑의 장학생으로 구분된다.

교회는 장학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5억원 정도의 장학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94년도 2학기 장학금 수혜자는 오늘 저녁찬양예배 전에 본당 지정된 좌석에 준비해야 한다. 또한 지난 1학기에 이어 계속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1학기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며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계속 지급이 보류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신학원장학생

백의현 남상범 김윤식

· 소석장학생

마상찬 이은경 백수미 이길찬 김지웅
이기엽 정미애 박송이 임채석 윤현선
이은례 나길수 홍기준 허수연 박명숙

· 충현장학생

심성웅 박창식 전진영 박태진 김영진
안복남 오은주 엄소연 윤정훈 김희영
이미숙 박윤경 김경성 한정근 김명섭
오지현 김성희 박형경 안명철 박경민

김수현 김범진 문선웅 김수영 고덕인
고정일 박동석 김종현 김진실 임성이
신혜령 오미선 김사무엘 신병철 김인균
최형원 이재기 구해경 김정직 김봉선
이민옥 이은정 정지현 고재영 최철훈
조혜영 김진세 고 주 김형선 서한희
박병규 김환홍 황인옥 류제근 최지영
김광희 엄혜숙 서지연

· 위탁장학생

유성렬 강석진 박윤하

· 사랑의 장학생

김동운 김선희 김대철 민설아 이승한
김정섭 박용찬 유호진 장윤주 이승환
이용재 이경영 백창훈 최규화 정혜원

당회장, 구역장 교육 실시

불참자는 테이프로 듣도록

매주 수요일 1부 예배후 구역장 공과준비 공부가 당회장 신성종 목사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한 구역장교육도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저서 「교리도 재미있다」를 교재로하여 실시하는데 앞으로 구역공과도 이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된다.

부득불 참석하지 못하는 구역장을 위해 구역장교육의 강의내용을 녹음테이프 제작하여 반드시 모든 구역장이 교육을 받고 구역공과를 인도하게끔 할 예정이다.

충현동산 임원 이사

보완 및 교체

당회는 충현동산 이사로 7명을 보완하고 임기 만료 된 감사를 교체하였다.

· 이사보완

현재이사: 신성종 김방진 김경철 강순용

보완이사: 윤명식 김차생 우기전 노광현 오진국 김재명 김여순

· 감사 임기만료 교체

퇴임: 박관영, 김재명
신임: 김의철, 하대선

'94 예수사랑 큰잔치

본격적으로 전도할 때
공중전화카드 및 위생팩을 선물로 사용

'94예수사랑 큰잔치가 본격적인 접촉, 전도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한달 남짓 남겨진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한 반응도 알아보고 출석여부를 중용하기도 하며 그동안 준비해온 일들을 마무리하는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

이에 준비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공중전화카드(2,000원, 3,000원)와 함께 음식물보

관이나 위생적인 오물처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위생팩을 준비하여 보급하고 있다.

태신자에게 접촉하여 대화를 나눌 때 자연스럽게 전해줄 수 있도록 제작한 위생팩과 공중전화카드를 사용하여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

전도를 위한 접촉에서 사용하기에 유용한 위생팩(상과 공중전화카드)하



목회자 세미나 개강 목회자 세미나 개강. 제3회 3학기 목회자세미나가 '한국교회 강단의 변혁과 성장'이라는 주제하에 지난 9월 5일(월) 개강했다. 전국에서 800여명의 목회자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개강한 본 세미나는 오는 11월 14일까지 9주동안 진행됐다.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모이는 세미나는 첫째 시간에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지난 학기에 이어 마태복음 강해를, 둘째 시간에는 강사들에 의한 특강으로 진행된다.



비가모는 당시 로마 총독이 주재하고 있는 도시로 아시아의 수도에 해당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도서관으로 유명했는데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알렉산드리아도서관에 버금가는 20만권 이상의 양피두루마리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도 좋고 살기도 편리하고 다 좋지만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는 이런 지역의 문제점은 혼합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황제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제우스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 아스클라피우스라는 뱀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즉 이곳은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1. 버가모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

“버가모교회의 사람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12절) 버가모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

니다. 각 나라마다 칼의 모양이 다른데 당시 로마군인들이 썼던 칼의 모양은 길이가 짧고 좌우에 날이 선 칼이었습니다. 이런 검으로 그들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교정복민들에게 있어서는 로마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검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생긴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가모 지역은 타협주의, 혹은 혼합주의가 만연한 우상숭배의 본거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의사가 환자들을 수술할 때 암세포, 피고름 등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날카로운 칼로 잘라내듯이 잘못되고 더러운 부분을 잘라 내기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했습니다(히 4:12).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검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오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하고 있는 그 당시 버가모교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2. 버가모교회의 위상과 주님의 칭찬

13절을 보면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사는 것을 안다고 했는데 여기서 산다는 말은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뿌리를 박고 산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본부에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교회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고 했습니다. 굳게 잡았다, 즉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지만 버가모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사람들은 황제를 신격화해서 가이사 황제가 그들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교회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여러 가지 핍박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하면서 칭찬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는 자랑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라고 했듯이 이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라는 점입니다. 순교자를 배출했다는 말은 신앙의 절개를 지킨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순교자의 이름이 안디바입니다. ‘안디바’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안티파스(anti-pas)’인데 모든 것을 반대했다는 말입니다. 이름속에 이미 나타나 있듯이 그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반대하고 신앙을 굳게 지켰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버가모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또한 너희들은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를 배출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3. 버가모교회에 대한 책망

첫째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발람은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예언을 했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백성을 파멸로 이끈 사람입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의 뇌물을 먹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거기서 끝내지를 않



버가모교회에 보내는 편지

(계 2:8-11)



신 성 중

<목사·당회장>

고 피를 내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했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신앙의 순결, 도덕의 순결을 다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에 염병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민 31:16).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올무입니다. 사탄마귀는 우리를 정면으로 공격하더라도 또 다른 올무를 만들고 함정을 만들기도 하여 우리를 빠지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올무에 빠지면 안됩니다.

둘째로 15절에 “이와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니골라당은 바로 니골라는 안수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이단종파인데 그들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복음의 시대요, 신약시대이니 이제에는 율법이 필요없다고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영혼만이 깨끗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이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까지도 하나의 환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독교의 속죄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아주 무서운 이단 교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스려보아도 안되니 육체를 가지고 쾌락이나 누리카 하는 식의 쾌락주의가 바로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무율법주의, 쾌락주의, 기독교의 근본교리인 속죄의 원리를 이들은 부정했

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것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버가모교회는 한편으로는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나왔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교리적인 면에서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점차적으로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시며 버가모교회에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길로 가던 길을 주님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검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버가모교회는 지금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4.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첫째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사를 주고”라고 했습니다. 만사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감추었던 만사, 여러분 이 만사가 무

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항상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인데 이 만나는 광야생활을 할 때만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사를 주시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일년에 몇번씩 만사를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어린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성찬예식입니다. 바로 그것이 현대적인 의미의 만나입니다. 그리스도와와의 하늘에서의 교제, 메시아 왕국에 동참하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로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흰돌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흰 돌은 예수님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재판할 때에, 이것이 무죄냐 유죄냐 하는 판결을 할 때 사용하던 돌이 있었습니다. 돌 두개를 넣은 주머니가 있는데 하나는 흰 돌이고 하나는 검은 돌입니다. 유죄일 때는 검은 돌을 내밀고 무죄일 때는 하얀 돌을 내밀니다. 그러므로 흰 돌을 내밀면 무죄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재판할 때에 사용했던 관행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흰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인지, 혹은 무죄를 뜻하는 것인지 분명치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속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셋째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새 이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새 이름을 주는 관습이 오늘날도 카톨릭에서 내려옵니다만 본문에 나오는 그 이름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새로운 인격, 새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아브람: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 사울: 바울, 시몬: 베냐, 곧 베드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새로운 이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흰돌을 받는 그러한 축복,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 이름을 얻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버가모교회가 사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 춘천 소년원을 다녀와서 ●

말씀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윤 삼 중

(목사, 고등부 지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 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46명의 교사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조그만 공간에 300여명이 꽂 들어찬 예배실은 땀 냄새와 사람의 열기로 사우나실을 방불케 하였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사들은 휴가를 내고, 자기 가정의 사역을 뒷전에 두고 더위를 무릅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 그들의 열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바로 사단을 무서워하지 않는 예수 세상을 만드는 영적인 악마리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젊은 교사들은 사회에서 범죄하여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있는 이들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서 큰 싸움을 하고 있는 용사와 같이 보이기도 했다. 소년원에 들어온 원생들의 주된 범죄는 강간 미수 사건이 제일 많고, 살인 미수 사건, 도둑질, 폭력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패싸움, 마약 및 환각제 복용 등이었다.

이것은 사회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고 오늘날 젊은 청소년들이 문제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교사들은 부흥집회, 성경공부, 각종 행사를 끝마치고 나면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부모가 병든 어린 아이를 가슴에 품고 울부짖는 모습과 같았다.

첫번째 개회예배를 드리는데 에스겔이 본 골짜기에 즐비하게 있는 마른 뼈들처럼 소망이 없는 것같이 보였다. 그때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것처럼 ‘제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같으

나 오직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날 저녁 집회에 마른뼈와 같은 영혼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서히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굳은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자 그들의 찬송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찬송을 부르는 그들의 얼굴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둘째날 저녁집회에서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단의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겹으로 끊어지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소년원에 있는 원생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교사들은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날 오후에는 뇌성마비환자 송명희 시인이 특별히 참석하여 특별 간증의 시간을 가졌다.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모든 원생들은 주의가 집중되고 그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궁금해 했다. 그 간증을 듣고나서 많은 원생들은 저런 몸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몸을 저주해야 마땅한데 어떻게 시종일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할 수 있을까? 큰 감동과 느낌을 받았다. 또한 자기가 만난 참 좋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있다고 자신있게 선포하였다. 여러분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더듬더듬 외치는 그 음성은 작았지만 힘이 있었고 큰 감동을 주는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에 교사들은 전부 특별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그 영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 목이 아프도록 부르짖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시간이 갈

수록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사단의 방해공작이 더욱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날 저녁식사에 불고기를 먹고서 원생들이 배탈이 났다고 원성이 들려왔고, 교사들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았고, 교직원들을 통하여 저녁집회를 간단히 해달라고 요청을 받기도 하였다. 우리들은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자 그 문제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우리들은 영적 인천 상륙작전을 선포하고 집중적인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곳에 함께 모인 교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다. 우리들은 단단한 각오를 하고 부흥집회에 임하였고, 찬양과 뜨거운 기도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다. 나는 조용히 기도를 한 후에, 조용한 가운데 구원초청을 하였다.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죄인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며 범죄한 내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손을 들고 일어나라고 외치자, 구원의 초청에 이쪽 저쪽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자 금방 300명의

원생 가운데 약 250여명의 원생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그 다음날 세례식에는 69명의 원생들이 권면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들이며, 이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릴 뿐이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사단이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에서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젊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유혹하여 세상에서 방황하게 하다가 범죄 집단에 가담하여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한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들을 치유할 없음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이러한 아름다운 일을 위해 몸으로 수고하신 교사들과 보이지 않게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하여 주신 분들의 정성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믿으며 뜨거운 감사를 드릴 뿐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을 받은 원생들이 다시는 사회의 범죄 집단에 속하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을 지키며,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많은 기도와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 세례식에는 69명의 원생들이 권면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물맷돌

기독교교육의 맹점

10여년간이나 영어를 배웠으면서도, 미국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려면 입술이 떨어지질 않고, 근 20년동안 우리 국어를 배웠으면서도 편지 한장 쓰려면 끔찍해야만 하며, 실험 실습이 없이 배운 과학지식이라 머리에서 맴돌기만하는 통에 실제생활에서 과학의 유익을 누릴 길이 없다. 이런 걸 가르켜 ‘한국교육의 맹점’이라고들 한다(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 같다).

외국인을 대할 때, 하얀 백지를 대할 때, 또 집안밖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일거리들을 대할 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아쉬움이자 화풀이이다.

그리고 보면 이러한 맹점이 일반 교육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수십년을 신앙생활하고도 예수님에 대해 한 마디도 못한다거나, 성경책은 오랜 세월로 닳아 버렸지만, 교회에 갈 때 ‘운반’하기만 할 뿐 생활에서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한다.

이런 것을 ‘기독교교육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육은 애들이나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시

아침입니다
하얀 수정 구슬이 대롱대는
깨끗한 아침입니다

아침

이 아침의 주인은
초록으로 울어대는
신천한 때까지 소리뽀

무엇 하나도
이 아침의 고요한 지저귀를
깨뜨릴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긴 밤을 뜯어내서 새워 보내고
깨끗한 아침을 맞아

에 정 신
(제6교구)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으로
구슬의 아침을 찬양하는
슬픈 시인이 있을 뿐입니다

토막소식

- ◆ 영아부는 9월 15일 각 반별로 찬송가 부르기도회를 개최한다. 내게로 오너라 외 11곡.
- ◆ 초등1부는 9월부터 토요전도를 시작하였다. 학동, 논현국민학교로 전도하러 가며 매주 토요일 경비실 앞에서 11시 30분까지 모인다.
- ◆ 중등1부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10월 16일에서 10월 30일로 변경, 확정하였다.
- ◆ 대학부는 오늘 정기총회를 위한 회칙 개정을 위해 모인다. 또한 9월 연속기도회를 새롭게 구성된 팀별로 모이며 찬양과 개인, 대학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 월, 화, 수, 목요일에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모인다.
- ◆ 청년1부는 오늘 면려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단을 선출한다.
- ◆ 새가정부는 9월 11일에 성경퀴즈대회를, 9월 25일 부부의 신앙성장을 위한 특강을 갖는다.
- ◆ 장년1부는 9월 25일 성경퀴즈대회를 연다. 범위는 히브리서 전장.
- ◆ 장년2부는 10월 23일 출애굽 전장을 대상으로 성경퀴즈대회를 갖는다.
- ◆ 가브리엘 찬양대는 30일(금) 찬양연습시간에 야고보서 3장에서 5장을 대상으로 성경암송대회를 갖는다.
- ◆ 에바다부는 오늘 노방전도를 나가며, 18일에는 성경다독시상이 있다.



사랑부개교 6주년

교회학교 사랑부는 개교 6주년을 맞으며 다채로운 개교기념 행사를 가졌다. 6년전 정신적인 미숙아들을 위한 교회학교를 개교한 이래 교회학교 교육을 못받던 이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다. 6년동안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부는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부에 출석하는 학생들의 행동과 모습이 좋아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학부로부터 교사로부터 들으며 참으로 모두가 감사하고 있다. 사랑부는 개교 6주년을 맞으며 감사예배와 솜씨 자랑, 사진전시회 등을 사랑부실과 교육관 1층 복도에서 갖고 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신성종 목사님과 그리고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해 일하시는 귀한 동역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12억 영혼의 중국을 향해 품으신 주님의 신실한 뜻들이 우리를 통해 중국 안에서 이루어져가기를 소원하며, 이 일을 위한 온 교회의 기도과 헌신이 아름답게 성취되길 기도합니다. 저는 목사님과 온 교회의 기도에 힘입어 배우고 있는 언어의 진보와 홍콩에서의 사역의 준비가 적지만 잘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중문대학에서 4학기 과정을 마쳤습니다. 1년은 3학기이며 전 과정은 2년 6학기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2학기를 마쳐야 합니다. 내년 4월에 다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T.W.R 방송사역은 저의 충신 동기 목사 몇분이 한국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했으며, 홍콩 현지에는 이 일을 위한 한국인 전임 사역자가 보충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지 Coordinator(조정자) 일을 금년 7월부터 사임했습니다. 전혀 아무 준비도 없던 방송사역이 조금이나마 기초가 놓여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7월 16일부터 23일까지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선교팀을 도와 통역과 함께 노방전도 축호전도를 하였고 8월 1일부터 4일

까지는 홍콩주재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중국 내지 선교사를 초청하여, 방지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세미나와 친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니다.

8월 7일(주일)에는 처음으로 홍콩 교회 주일예배 설교와 성찬식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언어가 많이 부족함에도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제가 전도하여 말씀을 공부하고 있던 島野先生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왔는데, 이들은 일본인이며 교회는 처음 출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주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을 소유할 수

선교지에서 온 소식



● 홍콩 / 김은태 선교사 ●

현재 저의 전략은
홍콩 및 광둥성을 기점으로하여
홍콩에서 중국 선교를 위한 일꾼을 훈련하여
중국 각지로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터 18일은 중국에 선교여행차 다녀왔습니다. 8월 11일에서 14일과 19일에는 부산 신평로 교회 대학부(제가 중현교회 오기 전 섬기던 교회이며 부서입니다) 선교팀을 데리고 현지에서 전도하며, 현지 홍콩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7월과 8월은 기도회를 쉬었고 9월부터 시작되는데 첫번 집회 설교를 합니다. 이 기도회가 잘 부흥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5학기 광둥어 공부(9월 7일부터 12월 15일)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개인전도 및 제자양육을 위한 준비로 島野夫婦, 黃偉榮, 宋智偉 등의 새 신자들(개인전도로 주님을 알게 된 이들)을 섬기며, 계속적으로 대학 컴퍼스 전도와 지역 교회와 협력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중국 내지 사역은 내년 1월부터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섬기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1차례 단기, 1차례 중장기 여행을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모든 선교 활동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따르고자 합니다. 현재 저의 전략은 홍콩 및 광둥성을 기점으로하여 홍콩에서 중국 선교를 위한 일꾼을 훈련하여 중국 각지로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저 자신이 중국선교에 실천적으로 헌신되어야 하겠고, 둘째는 장기적인 홍콩에서의 제자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언어 훈련이 끝나기까지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곧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중현교회의 머리되시며 선교의 사령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 김창인 목사 : 늘 건강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 신성종 목사 : 11일(월) 목회자세미나, 15일(목) 이화여자대학교 채플설교(이대 대강당)
2.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예수사랑 큰잔치에 온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많은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3. 중현의 교회학교마다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게 하옵시사 여기에서 성장하는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바르게 성장하여 이 땅에 죄악의 물결을 몰아내는 선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4. 중현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사 건강과 사업과 직장과 어려운 모든 일에 주님이 도와주시사 은혜내려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5.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며 오늘도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묘소관리비 납부토록

중현동산(제1동산 포함) 묘소관리비를 사무국 관리과와 동산관리 사무소에서 수납하고 있다. 미불된 유가족은 이번 추석을 전후해서 완불해야 한다(묘 1기당 연 2만원).

또한 추석을 전후해서 중현동산에 성묘하는 성도들은 묘소주변 잡초제거와 오물제거에 협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고3 학생을 위한 기도회

매일 오전 10-11시, 베다니홀에서

고등부는 대학입학 수능능력시험을 앞둔 고3 학생을 위한 기도회를 매일 오전 10 - 11시, 베다니홀에서 갖는다. 그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 - 11시에서 청소년 신앙지도회를 위한 학부모기도회로 모였었는데 이를 고3 학생을 위한 기도회로 매일 베다니홀에서 모이게 됐다.

사랑의 양서보내기

교회는 중앙일보사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운동차원에서 독서운동을 펼치며 사랑의 양서보내기운동을 시행하는데 동참하여 1구좌 95만원을 기증했다.

르완다난민 긴급구조 지원

교회는 르완다난민을 돕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선명회의 긴급구조 지원요청을 받고 300만원을 긴급구조 지원금으로 했다.